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비판지리학자 최병두, 비판적으로 읽기 Reading a Critical Geographer Byung Doo Choi Critically

황진태*

이번 《공간과 사회》 특집호인 “비판지리학자 최병두, 비판적으로 읽기”는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최병두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헌정하는 정년기념 퇴임논문집이 아니다. 본 특집호는 비판지리학자로서 활동해온 최병두의 학문 이력을 후배 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려는 비판의 장(場)으로 기획되었다.

최병두는 한국공간환경학회와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 of 창립멤버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적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주요 저서 번역자 그리고 국내 비판적 공간 연구를 선도해온 1세대 비판지리학자이다. 30여 년 동안 사회지리, 도시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환경지리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의 연구 결과는 수십 권의 번역본 및 단행본과 200편에 가까운 연구논문들로 축적되었다. 오늘날 그의 학문적 지층은 지리학을 넘어서 국내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dchjt@naver.com)

데이비드 하비에 대한 후학들의 날선 비판을 통해 그에게 진정어린 학문적 존경을 표했던 *David Harvey: A Critical Reader*(Wiley, 2006), 하비의 제자이자 젠트리피케이션과 불균등발전 연구로 널리 알려진 닐 스미스(Neil Smith)를 추모하고자 비판지리학 학술지 *Antipode*의 “The revolutionary imperative: Engaging the work of Neil Smith”(2017)와 같은 기획으로 다뤄질 만한 지리학자가 국내 학계에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공간과 사회》는 단연 최병두를 주목했다. 이번 특집호는 학술지 특집호의 주제로 삼을 만한 학자를 보유할 만큼 국내 공간 연구 분야의 풍토가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번 특집호에 수록된 논문은 총 세 편이다. 첫 번째 논문인 이후빈(2018)은 최병두뿐만 아니라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오래되었지만 녹슬지 않은 화두인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 발전을 살펴본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주제의 관건은 데이비드 하비를 비롯한 서구 논자들이 주도한, 추상 수준이 높은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과 역동성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수성이 내포된 공간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으로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후빈은 최병두가 제시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모순적 상황을 활용해서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논문인 권규상(2018)도 이후빈의 문제의식에 공명한다. 그는 최병두가 불균등 발전의 극복 전략으로서 네트워크 도시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 권규상은 최병두의 네트워크 도시 제안이 규범적, 당위적으로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증적 측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끝으로 세 번째 논문인 백일순·고민경(2018)은 최병두 연구의 후반부에 속하는 이주 연구를 검토한다. 저자들은 이주 연구를 두 단계로 나누어 각각 다문화 공간 개념과 행위자-네트워크 개념에 기반을 두어

최병두의 연구 궤적을 정리하고, 현대의 지리학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사례 연구하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상 세 편의 논문으로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최병두의 연구를 조망하기에는 박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일찌감치 올 초에 특집호에 참여할 저자들을 섭외했었지만 몇몇 저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특집호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본 객원 편집인도 최병두의 핵심 연구주제 중 하나인 정치생태학 연구를 평가하는 논문을 썼어야 했지만 올해 12월 대구에서 개최됐던 제9회 동아시아대안지리학 대회의 실무준비와 일정이 겹치면서 안타깝게도 필진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누락된 논문은 다음 기회에 《공간과 사회》에서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

특집호 논문에서 묻어나는 허허로움을 메우고자 논문과 함께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논평(commentary)을 기획했다. 총 네 편의 짧지만 강렬한 논평에는 중진학자인 김용창(서울대), 신현방(런던정경대), 정현주(서울대), 이상현(한신대) 선생님들께서 수고해주었다.

“인간은 시·공간적 존재이다”(최병두, 2002: 5).

위 문장은 10여 년 전, 본 편집인이 학부생 시절에 처음 읽은 최병두의 저작 『근대적 공간의 한계』(삼인, 2002)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첫 문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자 각자의 연구 이력의 끝 문장마저 최병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가령, 본 편집인은 최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비인간(nonhuman)도 시·공간적 존재인가?”(황진태, 2018)

인간과 비인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사회와 자연, 물질과 비물질, 네트워크와 스케일, 글로벌과 로컬 등등의 무수히 많은 이분법이 인식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사회에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비판지리학자들에게는 이러한 이분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교란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본 특집호는 국내 비판적 공간연구의 출발점이 최병두였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수한 이분법들을 교란하고 해체해야 할 이론적 과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여기에는 각자 나름의 끝 문장들을 만들기 위한 학술적 분투가 남겨져 있다. 이러한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 1세대 비판지리학자 최병두를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했던 이번 기획의 고갱이이다.

참고문헌

- 권규상. 2018. 「불균등발전의 극복전략으로서 네트워크 도시 논의의 비판적 검토」, 《공간과사회》, 제28권 4호.
- 백일순·고민경. 2018. 「다문화가정 사례를 통해 바라본 초국적 이주와 공간: 최병두의 이주 연구」, 《공간과사회》, 제28권 4호.
- 이후빈. 2018. 「지리학자 최병두의 공간정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읽기」, 《공간과사회》, 제28권 4호.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황진태. 2018.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공간과사회》, 제28권 1호, 5~15쪽.